



남원시와 쉼랜드파크가 손을 잡고 운영 중인 '전통한옥 체험시설 - 남원예촌'이 시민들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남원한옥마을체험 프로모션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평일 40%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남원시와 쉼랜드파크가 손을 잡고 운영 중인 '전통한옥 체험시설 - 남원예촌 (by Kensington)'이 시민들의 체험기회 확대를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지난 7월 개관한 남원예촌 (by Kensington)은 개관 후 이용자 수 3,500명, 일반 방문객 수 5,000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체험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체험객들은 "전통의 멋과 자연친화적인 조상들의 지혜를 느끼고 동시에,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통한옥은 불편하다는 편견을 깨 모양만 한 옥인 여타 시설과는 다른 한옥 그 이상의 한옥이다."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남원시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남원예촌의 체험기회를 시민들에게 확대하여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시민이 홍보대사가 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사업을

기대한다."라며 시민체험 프로모션의 계기를 밝혔다.

이번 체험 프로모션은 남원시에 주소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10월 3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평일(일~목)을 활용하여, 기존 시민할인가격에서 40% 추가 할인 된 가격(2인실 4만8,000원, 4인실 6만원, 대청 포함 4인실 7만8,000원)으로 이용가능하다.

체험객은 조식(2인)을 포함한 각종 객실용품(호텔급 어메니티), 미니바(음료, 한과 등) 등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 되는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며, 체험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문화관광과 ☎063-620-6174)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남원시가 구도심권 활성화 및 관광투윈 주된 관공권역 확대를 목적으로 광한투윈 인근 1만7,400㎡의 부지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지구 전통한옥 체험단지과 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를 비롯하여 총5차에 걸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개관한 1지구 전통한옥체험단지 남원예촌 (by Kensington)은 최기영 대목장, 이근복 번와장을 비롯한 한옥명장들이 혼을 담아 지은 전통한옥으로서, 시멘트, 스티로폼, 화학단열재 등 인체에 해로운 인위적인 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소나무, 천연왁칠, 한지, 황토, 대나무와 해초 풀 등 오로지 자연에서 얻은 귀한 천연재료만 사용하여 순수 고(古)건축방식을 재현하였다.

또한 남원예촌은 전라/지리산권 및 남해안권의 주요 관광지를 30분~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남도 여행의 거점에 위치해, 남원관광의 신규수요 창출 및 체험형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 협약

복합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 탄력... 저출산 해소·여성인력 경제 참여를 제고

순창군 지난 26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016 경제계 보육지원사업' 관련 MOU를 체결해 복합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12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재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삼성, 현대차 등 9개 기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식 선인, 경과보고, MOU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출산 해소 및 여성인력의 경제 참여를 제고를 위해 사회공헌차원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

로 순창군은 복합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복합공립어린이집은 노후화가 심한 복합성가정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9,700만원이다. 군은 이미 5억 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전경련이 3억 6,700만원을 본격 지원하게 돼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황숙주 군수는 "전경련의 어린이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에 감사 드린다"며 "복합공립어린이집을 하루빨리 추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열악한 보육환경과 안전을 걱정하는 지역 여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순창읍과는 거리적으로 멀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신규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았다. 군은 예산확보가 모두 이루어진 만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전경련의 어린이를 위한 사회 공헌활동에 감사 드린다"며 "복합공립어린이집을 하루빨리 추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호암 할매 도자기 나들이 열려

오는 30일까지 문화의전당서

고창군 고창읍 호암마을 어르신들이 정성으로 만든 도자기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호암 할매 도자기 나들이'가 열리고 있다.

26일에는 박우정 군수와 호암마을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행사가 열렸으며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도자기 작품 60여점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호암마을 15명의 어르신들은 지난 2012년 재능기부단체인 코이노니아의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성숙회 도자기 공예가와 지역 도자기 공예가 유춘봉 선생으로부터 도자기를 굽고 만드는 방법을 배우며 솜씨를 키워왔다.

호암마을 방부혁 이장은 "흙과 나무와 풀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듯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 속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인고의 세월

이 담겨 있다"며 "겸허한 아름다움을 지닌 어르신들의 작품이 마을에 희망을 만들고 있으며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선사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투박하고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르신들의 정성이 잘 담긴 작품들이 가득하다"며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행복을 빛고 있는 호암마을을 도자기 전시회에 많은 군민들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며 고창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

고인돌공원 일원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고창군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고창고인돌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선사시대로 가는 2016년 고창 국화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국화축제의 차원을 넘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군의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과 '운곡 탐사르습지' 등 자연생태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축제에 쓰일 화단국화는 고창군에서 종자 파종과 삼목 과정을 거쳐 육성한 약 50만주를 선발해 전시되며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6,000㎡의 축림선사마을 동산에 한반도 지도와 고인돌 개략적인 모로모로, 선사시대 공룡 등을 화단국화로 표현해 눈길을 끌도록 했다.

또한 축제장 입구에서 주 전시장인 축림선사마을까지의 약 700m 거리를 지루함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각 주제별 국화전시도 이뤄진다.

축제 기간 동안 약 50만주의 화단국화 전시뿐만 아니라 국화 소재 체험과 자신만의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야의 국화책방, 선사시대 유물인 빗살무늬토기와 반달돌 칼을 직접 만들어보는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선사시대 마을을 재연한 우가우 가마을(가창)에서는 선사 농경문화 체험, 사냥체험, 바비큐와 고구마, 감자를 구워먹는 원시음식 체험을 비롯해 고인돌 의상과 분장 체험 등 즐거운 체험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예방센터 마실길 걷기 운동과 매일 4회 해설사와 함께하는 운곡습지 탐방, 고인돌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지는 오쇼 프리마켓 등이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행사가 마련된다.

고창군에서는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안면 선운리 미당사문학관 일원에서 '미당문학제'가 개최되며 짙은 국화향기 속 문학적 감성과 유익한 체험이 가득한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당문학제'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문학 정신을 기리는 행사이며 '미당 문학특강', '제2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 음악극 '질마재 신화'를 비롯해 7080그룹사운드와 뽕가라, 사물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방지시설의 시설 개선·보완을 유도한다.

이용욱 환경특별경찰관은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요과 전화(063-650-1711)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또한, 최초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정기점검

폐수 무단방류 등

순창군은 오는 31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실질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폐수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비정상 운영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한다.

또한 무단방류 등과 같은 고발건의 경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방지시설의 시설 개선·보완을 유도한다.

이용욱 환경특별경찰관은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점검부터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시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군청 환경수요과 전화(063-650-1711)나 해당 읍면으로 하면 된다. 또한, 최초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야생버섯 중독사고 예방 현장지도

임실군은 가을비와 선선한 기온으로 야생버섯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 생태계 파괴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지도 활동에 나섰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주민과 산행객을 대상으로 이름과 용도를 알기 전 섭취금지, 중독현상 발현 시 구토 후 신속 치료 등의 야생버섯 중독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내에 자생하는 버섯류는 약 1천 500여 종이 있으며 이 중 송이, 능이, 표고, 새리, 잣, 피꼬리 등의 식용이 가능한 버섯은 350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생하는 독버섯은 약 90여 종에 달하는 반면, 야생에서 채취해 식

용 가능한 버섯은 20~30여 종 내외로 독버섯을 채취해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버섯은 구토, 설사, 근육경련, 환각증세 등이 나타나고 특히 '독유산 광대버섯' 같은 맹독성 버섯은 한 개만 먹어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조치방법은 가능한 빨리 종합병원을 찾아 중독 버섯을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명적인 독버섯을 다량 섭취했을 경우 치료 불가능하므로 먹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 관계자는 "채취한 버섯이 독버섯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저탄소 환경 체험 버스 운영

남원시는 26일 진로체험을 찾아오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환경 체험 버스'를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운영한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컴퓨터를 잠시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모드로 전환되는 그린터치 설치 사업을 유도하고자 그린터치 설치 사업에 참여한 100여명에게 에코백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전기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과 온실가스 줄이는 운동의 일환인 1인 1리탈 가꾸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씨앗연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교육을 제공하고자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버스를 통한 기후변화교육, 멸종위기생물 이야기, 온실가스 잡기 등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되며 폐건전지 10개를 쓰레기봉투 10L 1장으로 교환해주는 폐건전지 모이기 행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작은 참여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친환경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

임실군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민원봉사과 실거래신고 접수창구를 비롯해 임실군청 홈페이지(www.imsl.go.kr) 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또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거래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최대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신고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활동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순화파출소에서는 최근 농산물 수확철로 경운기의 도로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적재하에 야랑 반사지를 부착, 운전자들의 야간 시력을 침도록 하며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이 근거리 이동수단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운기에 야광반사지가 없거나 노후·퇴색돼 일반운전자들이 야간운행시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경운기에는 방향지시등이 없어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순화파출소에서는 마을회관, 농기계 많은 장소에 직접 나가 경운기 운전자를 상대로 저녁시간대 운전의 자제하고 부득이한 야간운전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리는 며 야광반사지를 부착해 드리는 등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박인규 소장은 "경운기 등 농기계 이용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운기의 야간 운행자제, 적재함 탑승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